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광양시, 스위스 제약회사 '스트라젠'사와 업무협약

국내외 판로 확대·매일 건강기능성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대



광양시가 11일 매실산업의 발전과 매실식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스위스 제약회사 '스트라젠'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청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식은 정현복 광양시장을 비롯해 안테타드 스트라젠 대표, 빛그린 매실사업단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시와 스트라젠사는 매실 건강기능성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 추진, 매실식품 개발 및 기능성에 관한 정보교류, 매실식품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홍보 등 매실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트라젠'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매실식품 등 건강기능성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10여 개국에 계열사를 두고 전세계 60개국 이상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정육자 매실원예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실의 기능성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 인식 제고는 물론 매실식품의 소비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매실 생산 농가들의 판로확보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우리나라 매실 생산량의 약 25%인 연간 9천여 톤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매실 주산지이며, 광양매실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대한민국 최고 명품 매실'로 그 가치와 신뢰를 인정받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보성군은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8일까지 19일간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27개소에 대해 관리주체 및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 점검항목은 ▲장애물 적체 ▲바닥재 굳어짐·페인 ▲구조물 변형 ▲보호벽·계단 등의 파손 여부 ▲그네 고리풀림 등 각 놀이시설을 비롯한 부대시설 전반과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관리 의무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시

설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수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시설을 보강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놀이시설 관리주체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 '기업애로 속 시원하게'... 현장행정 본격 시동

원스톱 지원단 운영 기업민원 해결과 소통에 큰 역할 기대

광양시가 '2019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애로사항 청취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다.

시는 그동안 1기급 1공무원 담당제 운영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등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앞장서 왔다.

특히 정현복 광양시장 등 간부 공무원이 중소기업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

속히 해결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접수된 총 46건의 기업 애로사항 가운데 44건을 해결해 완료율 96%를 달성했다.

올해에는 원스톱 기업 민원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광양시 14개 부서 및 기관(시8, 기관6)이 참여하는 '기업민원 해결 지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운영자금과 수출 관료 지원, 규제 개선사례 발굴 등 효율적인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기업지원 부서인 지역경

제과를 중심으로 관계부서와 유관 기관 협의를 통해 현장방문, 온라인, 간담회 등 지원단에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처리 결과를 해당 기업에 전달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기업애로 상담 온라인시스템 도입 등 각종 신규 사업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승재 기업지원팀장은 "기업현장의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황경석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봄맞이 '제4회 꽃과 나무 시장' 개장

정원지원센터서 오는 15일 ~ 31일까지 17일간 운영



순천시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정원지원센터 앞에서 '제4회 순천만 국가정원 꽃과 나무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 꽃과 나무시장'은 올해 4회째로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순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조경수와 화훼류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국가정원의 봄맞이 행사중 하나다.

주요 판매수종으로 먼나무와 가시나무, 후피향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교목과 철쭉, 에머랄드골드, 금목서, 홍가시나무 등 상록관목이며, 낙엽관목으로는 수국, 명자나무, 미니베를, 산수국, 모란 등이 판매된다.

또한 밤나무, 매실, 살구, 블루베리 등 과수류와 페튜니아, 가자니아, 데이지, 천리향 수선화 등 봄에 피는 예쁜 꽃들도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올해 '꽃과 나무시장'에는 나뭇잎 칼라액자 만들기, 수목 이름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운영

되어 봄날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반려식물 나만의 화분만들기'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이하 가족들을 대상으로 동반시 하루 150개를 무료로 나누어 준다.

한편, 한국복합협회 순천시지부에서는 소나무, 향나무, 소나무 등 분재 90여점과 야생화 60여점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순천정원문화산업발전협의회 서승기 이사장은 "이번 꽃과 나무시장에서 판매되는 정원수는 화원들이 재배한 것으로 품질을 보장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꽃과 나무를 만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고 순천을 남부수종 유통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꽃과 나무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꽃과 나무를 전국에 알리고, 정원자재종합유통전시관개장, 조경수 공판정 등 정원연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해빙기 일제방역 실시

순천시는 해빙기를 맞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방역 취약지에 대해 '해빙기 일제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시민들의 힐링 공간인 동천 일원에 대하여 선제적 방역을 실시했고, 원활한 방역사업 수행을 위해 읍면동 방역소독기를 순회 수리하는

등 일제 방역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 했다.

해빙기 방역소독은 해충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로 유충 한 마리 방제시 성충 수백 마리를 방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량의 약품으로도 살충효과가 커 해충 방제의 최적기이다.

순천시는 12일부터는 24개 읍면동과 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취약

지역 612개소, 정화조, 원동모기주요 서식지 등 유충구제와 하수구 내에 친환경 분무용 살충제를 살포하여 성충을 구제하는 방법을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축사 주변과 향이리, 화분, 페타이어 등 고인물 제거와 생활쓰레기 환경개선을 모기 서식처 제거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팀(749-68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황경석 기자

영광군, 법성포단오제 본격 준비 돌입

영광군은 2019 영광법성포단오제를 오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법성면 진내리 소재)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중요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는 5월 9일 지역의 화합과 군민의 무사 안녕을 기

원하는 '낙산뜨기' 행사로 그 서막을 연다.

행사기간에는 제전행사(산신제, 당산제, 용왕제 등), 체험 및 참여 행사(창포머리감기, 강강술래, 풍등 날리기, 민속놀이체험장 운영 등), 경연행사(단오장사씨름대회, 전국 숲쟁이 국악경연대회 등) 등 다채로

운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성포단오제는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전 세대가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며 "법성포 단오제를 찾아주시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총대 사안 관계기관 선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